

봄 하웃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기독교 경제철학: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Bob Goudzwaard's Critique of the Faith in Progress and
Christian Economic Philosoph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laim of value neutrality in modern economic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ristian economic philosophy of Dutch Reformational economist Bob Goudzwaard. Through a literature-based analysis of Goudzwaard's major works, the study explores the core themes of his economic thought, focusing on his critique of the "faith in progress" and his concept of economism. The findings indicate that Goudzwaard understood the economic system not merely as a technical or institutional mechanism but as a cultural expression shaped by ultimate religious commitments. He argued that economism, in which economic growth becomes an end in itself, weakens normative responsibility toward human beings, communities, and the created order by absolutizing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market autonomy. Furthermore, this study applies Goudzwaard's insights to the context of South Korea's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While economic growth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material prosperity, it has also reinforced a cultural paradigm that reduces human flourishing to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expansion. As an alternative, Goudzwaard's vision of a "caring economy" calls not only secular economic discourse but also Christian communities to reconsider the moral and spiritual foundations of faith and practice. Although his proposals require further development at the level of concrete policy design, his thought provides an important theoretical framework for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and for reorienting economic activity toward stewardship and the common good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ey words: Bob Goudzwaard, economism, faith in progress, caring economy, reformational philosophy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3일 최종수정, 6월 5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AI 융합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21세기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사실상 전 세계 경제 질서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체제가 전제하는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궁극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경제학은 흔히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학문으로 이해되며, 종교적 신앙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경제 질서와 학문 활동 자체가 특정한 세계관과 궁극적 헌신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경제 이론과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선(善)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전제하며, 따라서 경제학 역시 가치와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경제 사상가 밥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 1934-2024)는 현대 서구 자본주의를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를 규정하는 종교적 신념 구조로 분석하였다. 그는 특히 ‘진보신앙(vooruitgangsgeloof)’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마치 인간 해방과 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절대화되는 문화 현상을 비판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확장이 인간 존엄, 공동체적 연대,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잠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우즈바르트의 이러한 통찰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철학 전통, 특히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선형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도여베르트는 모든 학문 활동이 종교적 기본 동인(religious ground motive)에 의해 방향 지어지며, 이론적 사유 역시 궁극적 헌신으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Dooyeweerd, 1953-58, 1963). 하우즈바르트는 이러한 철학적 통찰을 경제 영역에 적용하여 경제학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성의 전제를 비판하고, 경제 질서를 문화적·종교적 표현으로 재해석하였다. 따라서 그의 경제철학은 단순한 경제윤리의 차원을 넘어 학문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포함한 학문 활동이 결코 신앙으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신앙이 학문적 해석과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혁주의 철학 전통에 기초하여 그의 진보신앙 비판과 경제주의 분석을 고찰하고, 그의 대안적 경제 비전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지니는 의미를 평가한다. 연구 방법은 사상사적 분석과 개념적 비판을 결합한 철학적 해석 방법을 따른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하우즈바르트의 사상을 주로 서구사회의 신학적·윤리적 논의 맥락에서 이해해 온 한계를 넘어, 그의 경제철학을 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현실을 해석하는 틀

로 적용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사회적 선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경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성장 중심 패러다임은 경제 영역뿐 아니라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 학문 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하우즈바르트가 제기한 진보신앙과 경제주의 비판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해석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하우즈바르트가 비판한 ‘진보신앙’은 어떠한 철학적·종교적 성격을 지니는가. 둘째, 그의 기독교 경제철학은 가치중립성을 표방하는 현대 경제학과 학문 이해에 대해 어떠한 비판을 제기하는가. 셋째, 그의 사상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학문과 경제 현실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가.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우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을 도여베르트의 선험적 비판과 연관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밝힌다. 둘째,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문제를 학문의 종교적 전제라는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다. 셋째, 그의 경제주의 비판을 한국 사회의 성장 중심 문화와 학문 풍토에 적용함으로써 하우즈바르트 연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하우즈바르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혁주의 철학 전통과 기독교 사회사상 연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의 대표 저작인 *Kapitalisme en vooruitgang*(자본주의와 진보사상, 1976), *Genoeg van te veel, Genoeg van te weinig*(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충분함, 1986), *Hope in Troubled Times*(혼란스러운 시대의 희망, 2007)는 현대 경제 질서에 대한 신학적·철학적 비판을 전개한 주요 저술로 평가된다. 초기 연구들은 그의 경제사상이 도여베르트와 폴렌호븐(D. H. Th. Vollenhoven)의 개혁주의 철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그는 경제 영역의 규범성과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비판을 강조한 대표적 개혁주의 경제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의 사상을 보다 넓은 기독교 경제윤리 및 신학적 경제 비판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요스트 헥스트멩겔(Joost Hengstmengel)은 도여베르트 전통의 규범적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하우즈바르트를 경제 현실의 종교적·규범적 구조를 분석한 대표적 사상가로 평가하였다(Hengstmengel, 2026: 99-121). 또한 룰 용어네일(Roel Jongeneel)은 개혁주의 경제학의 규범성에 관한 연구와 하우즈바르트와의 공동 저술을 통해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비판과 규범적 경제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하우즈바르트가 추구한 경제학의 종교적·규범적 성격과 긴밀히 연결된다(Jongeneel, 2019: 220-244 ; Goudzwaard and Jongeneel, 2014.).

한편, 그의 경제주의 비판은 신학적 경제 비판(theological critique of economics)의 흐름 속에

서도 논의됐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 체제를 단순한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 이해와 궁극적 신념이 구현된 문화적 질서로 해석하며, 시장과 성장 중심 사회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비판한다. 특히 마이클 노스콧(Michael Northcott)은 현대 경제 체제가 종교적 성격을 띠는 문화적 질서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우즈바르트의 문제의식과 상당한 접점을 보여준다(Northcott, 2004: 104-117).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하우즈바르트를 개혁주의 경제학 전통 내부에서 소개하거나 그의 경제 윤리적 통찰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의 사상을 학문 일반의 종교적 전제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둘째, 그의 진보신앙 비판과 경제주의 개념은 주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논의됐으며, 압축적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적용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국내 연구의 경우 하우즈바르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으며, 개혁주의 철학과의 연관 속에서 그의 경제철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우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을 단순한 경제윤리 이론이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설명하는 철학적 틀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진보신앙 비판을 도어베르트의 선험적 비판과 연결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성장 중심 문화와 학문 풍토에 비판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경제주의를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종교적 전제와 궁극적 헌신의 문제로 분석함으로써 하우즈바르트 연구를 한국적 맥락 속에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

1. 하우즈바르트의 생애와 사역

하우즈바르트는 1934년 네덜란드 남부 델프트(Delft)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1년부터 1957년까지 로테르담(Rotterdam)에 있는 에라스무스(Erasmus)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1971년에 같은 대학에서 *Ongeprijsde schaarste(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희소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오염의 비시장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 생존할 수 있는 동식물, 그리고 기타 충분한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경제 연구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희소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 영역의 규범성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 후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1879년에 설립한 반혁명당(ARP: Anti-Revolutionaire Partij)의 연구소인 카이퍼 재단(Dr. Abraham Kuyperstichting)에서 1959년부터 1966년까지 일했다. 그는 1967년까지 하원에서 반혁명당을 지지했으며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냈고 그 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철학부에서 사회문화 철학도 가르치다가 1999년에 은퇴하여 자유대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1975년에 반혁명당, 기독교역사연합당(CHU: Christelijk-Historische Unie) 및 천주교 국민당(Katholieke Volkspartij)이 합쳐 기독교민주당(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이 1980년에 설립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1977년에 이 당의 선거 선언문인 Niet bij brood alleen(빵만으로는 안 된다)를 공동 집필했다. 하지만 같은 해 판 아흐트(Van Agt) 내각의 보수적인 노선에 실망하여 1980년에 사임했다. 나중에 그는 진보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인민당(EVP: Evangelische Volkspartij)의 이념가가 되었으나 당원이 되지는 않았다.

그는 빈곤과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기독교와 교회의 책임에 대한 성찰과 기독교 사회사상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네덜란드 사자 훈장 기사(Ridder in de Orde van de Nederlandse Leeuw) 작위를 받았으며, 2011년 네덜란드 개신교 신학 대학(Protestantse Theologische Universiteit)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4년 4월 20일, 고향인 하위스 테르 하이데(Huis ter Heide)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2.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

1) 이론적 배경: 개혁주의 철학

하우즈바르트는 정치와 사회사상에서는 흐룬 판 프린스터러(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 (최용준, 2023: 123-143), 카이퍼(A. Kuyper, 1837-1920) (최용준, 2022: 187-205) 및 네덜란드의 정치인으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총리를 지냈던 헤르브란디(P.S. Gerbrandy, 1885-1961), 윤리 사상은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D. Bonhoeffer, 1906-1945), 교회 활동에서는 세계교회 일치 운동(ecumenism), 과학과 철학 분야에서는 도여베르트(최용준, 2005: 37-66)와 특히 그와 폴렌호브(최용준, 2008b: 105-131)에 이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나온 2세대 개혁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메케스(J.P.A. Mekkes, 1898-1987)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최용준, 2025: 467-498). 하우즈바르트는 도여베르트가 모든 학문적 사고와 문화의 종교적 근원을 드러낸 선형적 접근(transcendental approach) (Dooyeweerd, 1935-1936. 1953-1958. 1963 ; Kraay Trans. Vander Vennen & Zylstra ed. 1979 ; Choi, 2000)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를 “광의

의 기독교적 영감을 받은 과학 활동의 선구자”인 동시에 “서구 문화의 원리와 사회 구조에 대한 심층적 비판의 공간을 창조한 사람”으로 본다(Goudzwaard, 1995: 36).

그는 도여베르트의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개혁된 관점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대 서구사회의 실제 문제들의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 성찰을 시도했다. 도여베르트의 양상 이론에 따라(최용준, 2024: 45-65) 하우즈바르트는 현실의 규범적 구조(normative structure of reality), 특히 경제적 측면의 규범성(normativity of the economic aspect), 그리고 창조된 현실의 응답적 구조(responsive character of created reality)을 강조한다. 전자는 그의 초기 논문 “경제 이론과 현실의 규범적 측면(De economische theorie en de normatieve aspecten der werkelijkheid)”에서 명확히 드러난다(van Dijk e.a., 1961: 310-324). 따라서 그는 경제학을 양상 학문으로 강조하며, ‘사실’과 ‘규범’, ‘설명’과 ‘가치’ 사이의 엄격한 신칸트적 구분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완전히 중립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접근법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여 다양한 경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대화는 “그 기본 전제가 명확해질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Goudzwaard, 1970: 97).

그는 또한 “모든 인간의 경제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최소한 재화를 검소하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주장하며 창조된 현실의 응답적 구조를 강조한다(Goudzwaard, 1970: 10-11, 168).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요 1:1). 창조는 마치 말씀과 같으며, 인간은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최용준, 2008). 이러한 응답적 구조와 현실의 규범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사고와 문화 활동에서 규범적 원리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우즈바르트의 경제학 비판은 단지 윤리적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문제 제기는 경제학이 표방해 온 ‘가치중립성(Wertfreiheit)’의 전제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직접적으로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비판에 근거한다. 도여베르트에 따르면, 이론적 사고는 결코 자율적이거나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이론적 사유가 세 가지 선형적 질문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첫째, 이론적 사고는 무엇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가(이론적 태도의 형성)? 둘째,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질서와 통일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셋째, 이론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이론이 항상 선이론적(pre-theoretical) 현신, 곧 종교적 기본 동인에 의해 방향 지어진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성은 사실/가치의 이분법을 전제하는 근대적 인식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학은 자신을 경험적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학으로 규정하며,

가치 판단은 외부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도여베르트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이미 특정한 규범적 구조의 선택을 전제한다. 예컨대 경제학이 희소성, 효율성, 성장, 생산성 등을 중심 범주로 설정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경제적 양상만을 절대화하는 선택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방법론적 결정이 아니라, 현실의 다차원적 구조를 특정 양상으로 환원하는 종교적 방향성의 표현이다.

아웃즈바르트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경제학은 경제적 양상의 자율성을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을 사회 질서의 궁극적 기준으로 격상시킨다. 이때 경제는 하나의 기능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규정하는 중심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도여베르트가 말한 ‘양상적 환원’의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범주가 다른 모든 문화 영역—윤리, 법, 공동체, 신앙—을 판단하는 최종 잣대로 기능하게 될 때, 경제는 더 이상 상대적 질서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아웃즈바르트의 가치중립성 비판은 다음과 같은 선형적 구조를 지닌다. 첫째, 경제학은 사실/가치 구분을 통해 자신을 중립적 학문으로 제시하지만, 둘째, 그 이론적 범주 선택 자체가 이미 특정한 종교적 근본 동인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그 결과 경제적 양상이 현실의 통합 원리로 오인되고 절대화된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학이 단순히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비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제학의 이론 형성 조건 자체가 종교적 방향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선형적 비판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신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과학이 아니라, 특정한 궁극적 헌신—특히 근대 인본주의적 진보 동인—에 뿌리를 둔 문화적 실천의 한 형태이다.

이 점에서 아웃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은 경제학과 신앙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아니라, 학문 활동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전제를 해명하는 철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더 자세히 논의할 그의 진보신앙 비판은 결국 학문의 자율성 신화를 해체하고, 모든 학문이 궁극적 헌신에 응답하는 행위임을 드러내는 시도이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외부적 결합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종교적 근원의 자각과 방향 전환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진보신앙 비판

아웃즈바르트는 특히 진보(vooruitgang)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현대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전제를 예리하게 분석한 후, 이 개념에 대한 자신의 선형적 비판을 제시하고, 이어서 자신의 기독교적 대안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우선, 1972년 교수 취임 연설에서 그는 인간의 진보 신앙(vooruitgangsgeloof)이 도여베르트가 묘사한 “자연

의 완전한 통제를 향한 르네상스의 파우스트적 야망”, 즉 근대 서구 사상과 문화의 자연적 이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Goudzwaard, 1972: 5; Dooyeweerd, 1958: 64 ; Goudzwaard, 1974: 98-131). 그는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측면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 서구 문화 전체에 뿌리내려 왔으며, 진보적 경제학자인 갤브레이스(J.K. Galbraith, 1908-2006)와 네덜란드의 미래학자였던 폴락(F.L. Polak, 1907-1984)이 대표자들이라고 본다(Goudzwaard, 1972: 15).

진보 신앙은 그의 다른 책 *과도하게 발전한 서구에 대한 도움*(*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1975)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그는 여기서 서구 국가들을 심각한 과잉 개발과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이는 “문화 전체와 비교하면 기술 및 경제 성장이 지나치게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Goudzwaard, 1975). 그는 인플레이션, 실업, 대중의 신뢰 저하, 에너지 및 자원 부족, 노동자 불만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는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성장 모델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과잉 개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면서, 그는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이 지닌 구원적이고 해방적인 힘에 대한 깊은 믿음, 즉 “성장하는 자유 시장 생산의 틀 안에서 현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동인이었다고 주장한다(Goudzwaard, 1975: 3). 그 이후 그는 “화폐 가치에 기반을 둔 기술과 경제 체제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다(Goudzwaard, 1975: 4).

이것을 다른 말로 ‘경제주의(economism)’라고 부르는데, 이는 경제적 논리와 성장, 시장 효율성을 사회 전반의 판단 기준으로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산업 혁명 이후 근대 자본주의가 확산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효율이 인간 번영과 사회 문제 해결의 최고 가치로 숭배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 서구인은 경제 체제의 자율적 발전을 선언하고, “경제적 진보가 그 방향이나 인간이나 자연의 희생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선언했다”라고 그는 분석한다(Goudzwaard, 1975: 13). 하우즈바르트는 이를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학문적 편향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근대 서구 문화와 사상의 종교적 기반, 즉 인간 진보에 대한 신앙과 결합된 문화적·종교적 이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주의의 핵심 구조는 경제적 성취와 기술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절대화하고, 사회적·윤리적 고려보다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하며, 인간과 자연, 공동체 등의 다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주의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도여베르트적 선형 비판을 통해 분석될 수 있는 문화적·철학적 현상이며, 한국 사회에서도 성장과 경쟁, 효율을 절대적 선으로 숭배하는 사고 속에서 여전

히 작동한다.

하우즈바르트는 경제적, 기술적 성장과 사회적 진보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창조적 잠재력으로 이 세상에 부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기술과 경제를 종교로 만들 때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경고한다. 즉, 우리가 그것들에 믿음과 신뢰를 두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들을 절대화할 때 위험해진다는 것이며 그 결과, 현대 서구사회에 “무력감”이 스며들었고 “인류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선로에서 기관사 없이 기차에 앉아 파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다(Goudzwaard, 1975: 54). 다른 말로 그는 현대 서구사회를 ‘터널 사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함께 터널 안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Goudzwaard, 1975: 30). 하지만 일단 한번 터널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길이 없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진보 개념 또한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생명 없는 사물 사이의 관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바로 이것이 서구가 지금 위기에 직면한 이유라고 말한다.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자연에 대한 통제력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저서 *자본주의와 진보사상(Kapitalisme en vooruitgang)*¹에서 하우즈바르트는 서구 문화의 지배적인 종교적 동인인 인간 진보의 추구에 대한 믿음과 서구사회 구조의 핵심 요소인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를 다루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다(Goudzwaard, 1976). 그에 따르면, 진보에 대한 이러한 인본주의적 믿음은 서구 사상과 문화의 특징이었다. 이는 교육의 발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그리고 현대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이룩된 진보가 모든 종류의 사회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임을 의미한다. 이 신앙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진보를 계속 추구해야 함을 암시한다. 하우즈바르트는 자신이 선택한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Goudzwaard, 1976: xxii-xxiii.). 첫째로 인간의 진보라는 주제는 서구 문화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으며, 특히 산업 혁명 직전 계몽주의 시대에 번성했다. 둘째로 이 진보라는 모티브는 실제로 신앙의 모습으로 자주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진정한 신앙의 고무적인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묘사되었다. 셋째로 근대 서구 세계의 서로 얽혀 있는 문제들, 가령, 환경과 자원 문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소외와 외로움 등은 어떤 식으로든 서구의 기술적, 경제적 진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보라는 단어는 여러 작가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1) 부제는 *Een eigentijdse maatschappijkritiek(현대 사회 비판)*. 2판이자 개정판은 1978년에 출판되었다. 영어 번역은 Josina Van Nuis Zylstra, (1979). *Capitalism & Progress: A Diagnostic of Western Society*. Toronto and Grand Rapids: Wedge and Eerdmans.

이처럼 자본주의의 발전이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하우즈바르트는 서구사회 질서가 진보에 대한 이러한 인본주의적 믿음으로부터 뚜렷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영향이 서구사회에 대한 현대적 도전의 출현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전 확신을 재확인한다. 그는 이러한 진보와 성장에 대한 믿음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윤리적 영역에서는 공리주의, 예술 영역에서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그리고 과학 영역에서는 실증주의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진보 동인이 실제로 도여베르트의 근대 서구사회의 종교적 근본 동인인 자연(nature)과 자유(freedom) 동인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Goudzwaard, 1976: 13-14). 인본주의적인 서양의 근대 철학 및 문화는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대표되듯, 자연 과학적 이상을 절대시하는 ‘자연’ 동인과 인간의 인격 이상을 강조하는 ‘자유’ 동인이 공존했으나 양자가 결국 화합하지 못하면서 변증법적 갈등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서양 문화의 위기라고 도여베르트는 분석했다(Dooyeweerd, 1963).

종교적 신념과 그 문화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우즈바르트는 “인간과 하나님, 및 그의 이론적·실천적 추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성경적 규칙”을 언급한다(Goudzwaard, 1975: 14). 첫째, 모든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피조물 중에서 상대적인 무언가를 절대화하여 섬긴다. 둘째,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image of image)으로 변형되거나 변질된다. 셋째, 그 결과 인간은 이 왜곡된 형상에 따라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 그는 현대 서구 문명을 분석한다. 우선, 현대 서구인들은 경제 성장, 과학, 기술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왔다. 따라서 그들은 이처럼 진보 신앙에 사로잡힌 서구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우상들의 형상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 그들은 이제 앞서 언급한 다양한 변증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그는 사회경제적 삶은 사람들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하우즈바르트가 비판한 진보신앙과 경제주의는 서구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고도성장의 경험 이후 형성된 성장 중심의 사회적 상상력은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를 거의 자명한 선(善)으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학문 영역에서도 강하게 작동해 왔다.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효율성, 경쟁력, 생산성은 가치 중립적 기준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사실상 특정한 세계관과 신념 구조를 전제한 학문 이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학문 풍토는 하우즈바르트가 지적한 ‘준 종교적 진보신앙’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낸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문의 목적은 점차 진리 탐구나 공동선보다는 성과 지표, 취업률, 기술적 유용성으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성찰보

다는 경제 성장에 봉사하는 도구로 이해된다. 이는 학문이 신앙적·윤리적 성찰로부터 분리된 채 자율화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웃즈바르트가 비판한 진보신앙과 경제주의는 서구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고도성장의 경험 이후 형성된 성장 중심의 사회적 상상력은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를 거의 자명한 선(善)으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학문 영역에서도 강하게 작동해 왔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1인당 약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OECD Society at a Glance 2022 보고서). 이는 OECD 평균 1.51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최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또한 통계청의 2025년 고용동향 자료는 청년층(15-29세) 고용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이 약 44.8%에 불과하며, 청년 고용자는 전년 대비 약 218,000명 감소했다는 점은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청년 세대의 고용 안정이 동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시점의 통계에서도 15-29세 고용률이 약 44.6%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www.kostat.go.kr).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만으로 사회적 번영을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한국 사회가 여전히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성과 지표와 경쟁,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는 학문적 풍토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아웃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은 한국 사회에서 학문과 경제 활동을 신앙의 관점에서 재사유할 수 있는 비판적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기독교 경제 철학적 대안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적 헌신이나 삶의 지향이 바뀔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아웃즈바르트는 주장한다. 서구 문명에서 과학, 경제, 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진보에 대한 지배적인 믿음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개발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진보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보 교리를 대체하기 위해, 그는 서구인들이 완전히 다른 신앙고백을 통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를 위해 서구인들이 경제생활의 종교적 뿌리를 인정하고 서구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부분을 형성하는 결정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아웃즈바르트에 따르면, 진정한 진보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Goudzwaard, 1972: 16).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해방하고 인도하는 힘이 있

으며 교회의 증거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표현한다(Goudzwaard, 1975: 20-21).

먼저, 경제적 삶에 대한 신성한 규범은 청지기 정신(rentmeesterschap, stewardship)이다(눅 12, 16장; 벰전. 4:10). 하웃즈바르트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창조의 응답 구조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Goudzwaard, 1975: 56-57). 그에 따르면,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되지만”, 서구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한다. 즉, 먼저 모든 것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한 다음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환경에 가한 피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Goudzwaard, 1975: 57). 그는 이러한 서구 사회경제 시스템이 진보에 대한 세속적 신앙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확신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장차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대체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다(마 4:4).

경제(Economy)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집(Oikos)인 이 세상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Nomos)을 바로 알고 그 법칙대로 다스리고 발전시킴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현대 서구사회에 적용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개방적 소유와 청지기 정신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행 2:44-47). 그는 오늘날 서구사회가 개방적이라기보다는 폐쇄적이라고 주장하며, 서구사회를 터널 끝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터널 사회”라고 규정하지만 그런데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부실한 청지기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분[그리스도]은 모든 것이 그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실 것이다.”(Goudzwaard, 1975: 30)

그의 다른 저서 **현대, 이상, 이데올로기**(*Idols of our Time*)에서 하웃즈바르트는 권력/안보, 번영, 혁명, 민족주의와 같은 현대 서구의 이상적 이념들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한다(Goudzwaard, 1981).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상적 이념들을 규탄하고 “셋별”로서 하나님의 새날을 알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적인 순종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촉구한다(계 22:16). 더 구체적으로, 광야와 같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그는 진보, 성장, 착취의 경제보다는 돌봄과 자족의 경제(economie van zorg en genoeg)를 옹호한다(Goudzwaard, 1986).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희생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대안적인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로, 하웃즈바르트는 청지기 정신과 함께 개혁된 소명(beroep, calling) 개념을 강조한다. 인간은 경험적 구조 속에서 신성한 규범을 실현해야 하는 문화적 행위자이다. ‘경험적’ 현실과 ‘규범적 현실’ 사이의 큰 불일치를 극복하면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규범이 인간이 인도하거나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각각의 ‘색깔’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다. 그는 심지어 모든 사업 활동이 청지기 직분을 확립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장한다(Goudzwaard, 1986: 253-254). 따라서 그는 노동자들의 참여(medezeggenschap)를 지지한다. 또한, 카이퍼가 강조한 영역 주권(領域 主權, souverainiteit in eigen kring, sphere sovereignty), 즉 사회의 모든 영역은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각자 고유한 주권이 있으므로 한 영역이 절대화되어 다른 모든 영역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상이 예를 들어 기업 경영의 정부 개입에 대한 정적인 방어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오해에 맞서, 하우즈바르트는 더욱 정교한 원칙, 즉, 각 영역에 대한 책임(verantwoordelijkheid in eigen kring)을 주장한다.

환경, 시스템, 그리고 서구 인간의 취약성을 통해 진보의 변증법적 딜레마를 지적하면서, 그는 현대 서구 문화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자율적인 인간, 즉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연을 무한히 복종시킨 인간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동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다시 한번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비판적 접근에 빛지고 있음을 인정한다(Goudzwaard, 1979: 155-156). 그는 이 위기에서 부분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미 주장했듯이, 여기서도 “우리 사회에서 진보 그 자체의 위치를 논의할 때”에만 관점이 생긴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Goudzwaard, 1986: 263). 더 구체적으로, 그는 생존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결정 요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진실, 정의, 책임, 청지기 정신, 그리고 사랑이라는 규범으로의 회귀를 촉구한다.

나아가 그는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er Schule)의 사회학자였던 마르쿠제(H. Marcuse)의 혁명 사상, 미국 라이히(C. Reich)의 탈출과 반문화 사상, 깰브레이스의 사회와 인간 및 헝가리계 영국인 물리학자 데니스 가보르(D. Gabor)의 수정과 같은 다른 사상가들의 대안들을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사회(disclosing society)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공개적 사회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언급한다. 우선, 그는 “[우리는]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진보가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인간은 진보의 길을 따라 특정한 중요한 발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Goudzwaard, 1979: 193). 네덜란드의 기독교 기술 철학자요 동료였던 스푸르만(E. Schuurman)의 주장, 즉 현대 사회의 ‘기술주의(technicism)’ 비판에 공감하면서 하우즈바르트는 진보의 힘, 즉 경제, 기술, 과학의 상호 불가분리적인 연결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경제, 기술, 과학은 “각각의 고유한 좁음을 서로 연결하는 세 개의 통합된 갈래기”이다(Goudzwaard, 1979: 197-199). 과학의 좁아짐은 자연 과학적 사고방식의 독점에 있다. 기술의 좁아짐은 기술이 주어진 자료의 자유로운 설계로서 “기술을 위한 기술”로 좁혀지는 기술주의로 귀결된다. 경제의 좁아짐은 모든 것을 화폐라는 잣대로 독점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없는 것은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한다. 이 “3단 로켓은

... 우리 사회라는 우주선을 물질적으로 풍요한 약속의 땅을 향해 단일 궤도를 따라 더욱 높이 올라간다.”(Goudzwaard, 1979: 200)

둘째, “이러한 발전 동력이 사회의 궁극적 기준이라는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Goudzwaard, 1979: 193) 따라서 우선순위의 의식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 자연, 가치, 창조, 그리고 먼 이웃에 대한 의미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만 과학, 기술, 경제의 방향과 범위가 확립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셋째, “사회의 생산 부문에 직접적이고 완전한 책임을 재도입하여 도덕, 정의, 기술, 경제의 의무적이고 확고한 규범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Goudzwaard, 1979: 209)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책임은 단순히 시장의 점진적인 효율성 그 이상을 요구한다. 기업은 환경, 건강, 그리고 노동자와 집단의 복지 측면에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 기술적 책임은 단순히 그것이 작동하는지만 묻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전형적인 인간 도구의 창의적인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의미 있는지도 질문해야 한다(Goudzwaard, 1979: 213).

마지막으로, “노동과 인간 규범적 책임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공리주의적 행복의 지평과의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Goudzwaard, 1979: 242). 사회적 관계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향하는 필수적인 규범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비록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문을 품고 있지만, 하우즈바르트는 진보라는 우상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새로운 종교적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부버(M. Buber)와 함께 이를 위해 창조주의 율법을 간구한다. 노예화하는 자율성이든, 해방하는 타율성이든, 유평피아를 제한하는 것이든, 아니면 성경적 종말(eschaton)의 고무적인 개방성이든 말이다. 여기에 우리의 가장 깊은 선택이 있다(Goudzwaard, 1979: 249). 하우즈바르트가 메케스가 강조한 도여베르트의 개현 과정(opening process) 개념을 여기서 적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카이퍼가 네덜란드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해 시작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독교 사회콩그레스(Christelijk-Sociaal Congres) 1991년 대회에서 서두 연설을 한 하우즈바르트는 진보 신앙이라는 인본주의적 동인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다듬으며, 각자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길을 갈 때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상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순진한 진보 신앙은 사라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오늘날 그것이 더욱 복잡하고 회의적으로 되었다고 계속 말한다. 진보 신앙 그 자체는 이제 정부, 기업, 노동조합 운동, 심지어 학교, 병원 및 기타 사회 기관과 같은 서구사회의 제도와 구조에 구체화하였다. 경영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해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충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Goudzwaard, 1992: 74).

하지만 네덜란드 노동조합 연합(FNV: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의 메스만(L.A.G. Mesman)은 이러한 하우즈바르트의 의견을 비판했다(Congresboek van het christelijk social congress, 1991: 82). 메스만은 모든 형태의 경제 성장은 잘못되었다는 하우즈바르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이 빠른 경제 성장 없이 어떻게 합리적인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메스만은 제삼 세계의 성장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메스만에 따르면 지속적인 발전은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3. 하우즈바르트 경제철학의 의의와 한계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은 현대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신화와 성장 중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경제 활동의 종교적·문화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그는 경제 문제를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헌신(ultimate commitment)과 문화적 방향성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경제학 논의를 철학적·신학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사상은 여러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그의 사상의 현대적 의의 역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1) 하우즈바르트 경제철학의 의의

첫째, 하우즈바르트는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신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근대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경제 현상을 객관적 사실로 분석하는 가치중립적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하우즈바르트는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비판을 경제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경제학 역시 특정한 종교적 전제와 문화적 신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학이 희소성, 효율성, 경쟁, 성장 등을 중심 범주로 설정하는 순간 이미 현실에 대한 특정한 규범적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모든 경제 이론은 궁극적 가치와 인간 이해를 전제한다. 이러한 통찰은 경제학뿐 아니라 현대 학문 전반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비판을 제공한다. 특히 기술주의와 실증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학문의 종교적·문화적 전제를 재성찰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그의 공헌은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그는 성장주의의 종교적 성격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였다. 하우즈바르트의 대표적 공헌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한 근대 사회의 신념을 단순한 정책 선호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현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는 진보신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 자체가 인간 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현대 문화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경제 비판을 넘어 문화 비판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성장률, 생산성, 경쟁력이 사회 전체의 가치 기준이 된 현대 사회에서 그의 비판은 경제주의(economism)가 어떻게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셋째, 그는 경제 문제를 공동체적 책임과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주류 경제학은 대체로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이해한다. 이에 반해 하우즈바르트는 경제를 청지기직의 실천 영역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 활동을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창조 세계와 이웃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만든다. 특히 환경 위기와 양극화, 공동체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오늘날 그의 ‘돌봄과 자족의 경제’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그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경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하우즈바르트의 작업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성경 구절을 적용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는 경제 이론 자체의 철학적 전제를 분석함으로써 신앙이 학문의 외부에 존재하는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학문 형성의 근원적 토대임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그의 작업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학문 전통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하우즈바르트 경제철학의 이론적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즈바르트의 사상은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경제 성장의 긍정적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우즈바르트는 성장주의의 이상적 성격을 예리하게 비판하지만, 경제 성장이 역사적으로 수행한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 교육 기회 확대, 절대 빈곤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은 경제 성장이 단순한 물질적 축적을 넘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복지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고도성장을 통해 전후 빈곤을 극복하고 교육과 의료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성장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성장 비판과 성장 거부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 하우즈바르트는 반복해서 경제 성장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비판하지만, 실제 정책 논의에서는 성장 자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저개발 국가나 신흥 경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은 여전히 빈곤 감소와 기본적 인간

육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의 방향과 목적을 비판하는 것과 성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비판자들은 하우스바르트의 논의가 선진국 중심의 문제의식에 머무르며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현대 경제 체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우스바르트는 경제주의를 현대 사회의 중심적 문제로 진단하지만, 오늘날의 경제 체제는 국가, 시장, 국제기구, 기술 플랫폼, 금융 네트워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위기를 단일한 종교적 동인이나 진보신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플랫폼 경제, 인공지능 기반 노동시장 변화 등은 경제주의 개념만으로 충분히 분석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3) 다른 경제사상과의 비교를 통한 한계

하우스바르트의 독창성은 다른 경제사상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지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 역시 드러난다. 우선 자유주의 경제학은 시장을 단순한 효율성의 장치가 아니라 개인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특정 집단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발적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하우스바르트는 시장이 지닌 자유 창출 기능보다는 이상화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그의 분석은 시장이 왜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구조적 착취 체제로 비판한다. 하우스바르트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지만, 마르크스와 달리 계급투쟁이나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를 핵심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문제의 근원을 인간 마음의 종교적 방향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 책임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 구조와 제도적 권력 문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공동체와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하우스바르트와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구체적 정치 제도와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반면, 하우스바르트는 보다 근본적인 종교적 전환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의 대안은 철학적·신학적 수준에서는 강력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정책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

하우스바르트 사상의 가장 큰 약점은 정책적 구체성의 부족에 있다. 그는 ‘돌봄의 경제’와 ‘자족의 경제’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실제 국가 경제 운영과 기업 활동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국가 예산, 조세 정책, 국제 무역, 산업 정책,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구체적 영역에서 그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그의 사상은 강력한 규범적 비전(normative vision)을 제공하지만, 실천적 정책 이론(policy theory)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세계 시장과 긴밀히 연결된 경제 구조 속에서 ‘돌봄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5) 비판적 평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우즈바르트의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핵심 공헌은 특정한 경제 정책을 제안한 데 있지 않고, 경제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전환을 촉구한 데 있다. 그는 경제 문제를 기술적·제도적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의 궁극적 헌신과 문화적 방향성의 문제로 재해석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완결된 경제 이론이라기보다 현대 사회의 성장주의와 경제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만드는 규범적·철학적 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경제 발전의 성공 경험이 강한 사회에서는 그의 비판이 성장의 성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과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성찰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관계를 재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철학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은 북 하우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기독교 경제철학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경제 질서에 내재된 종교적 성격과 그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탐구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절대적 가치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보신앙’이라는 새로운 이상승배에 빠졌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경제를 가치중립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경제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경제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책임, 상호 돌봄, 청지기적 관리, 그리고 자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경제 질서를 제시하였다.

하우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은 개혁주의 철학, 특히 도여베르트의 사상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도여베르트가 인간 문화와 사회제도 속에 작동하는 종교적 기본 동인을 강조하였다면, 하우즈바르트

는 이를 현대 경제 체제에 적용하여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종교적 헌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의 분석은 경제 문제를 단순한 정책적·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가치와 신앙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아웃즈바르트의 통찰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저출생, 청년 세대의 미래 불안, 과도한 경쟁,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공동체 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웃즈바르트의 비판은 경제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재검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회는 경제적 성공을 신앙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번영주의적 경향을 경계하고, 정의와 돌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웃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경제철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기독교 세계관적 의미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의 경제사상이 실제 경제 정책이나 현대 글로벌 경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그의 사상을 현대 생태경제학, 복지국가론, 공동체 경제론 등과 비교·분석하는 작업 역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웃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을 현대 한국 사회의 경제·복지 정책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생태 위기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그의 통찰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을 도여베르트를 비롯한 개혁주의 철학자들의 사회철학과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경제윤리와 사회 질서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웃즈바르트는 경제 성장과 진보를 절대화하는 현대 사회의 이상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 경제 이해를 제시하였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창조 세계의 온전한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도전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최용준 (2005).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IVP, 37-66.
- 최용준 (2008a). **응답하는 인간**. SFC.
- 최용준 (2008b). 디르크 볼렌호브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철학**, 6권, 105-131.
- 최용준 (2023). 흐른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8(3), 123-143.
- 최용준 (2022).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3), 187-205.
- 최용준 (2024).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1), 45-65.
- 최용준 (2025). 요한 메케스(Johan P. A. Mekkes)의 기독교 철학에 나타난 특징에 관한 고찰. **기독교 철학**, 44, 467-498.
- Choi, Y. J. (2000).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Buijten & Schipperheijn.
- Dooyeweerd, H. (1935-1936).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H.J. Paris.
- Dooyeweerd, H. (1953-1958).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Dooyeweerd, H. (1958). *Maatstaven ter onderkenning van progressieve en reactionaire bewegingen, Rede 150-jarig bestaan Koninklijke Akademie van Wetenschappen*, N.V. Noord-Hollandsche Uitgevers Maatschappij.
- Dooyeweerd, H. (1963). *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isch grondmotief*. van den Brink & Co. Kraay, J. Trans. Vander Vennen, M. & Zylstra, B. ed. (1979). *Roots of Western Culture: Pagan, Secular, and Christian Options*.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Goudzwaard, B. (1961). "De economische theorie en de normatieve aspecten der werkelijkheid", Van Dijk, W.K. e.a., *Perspectief: Feestbundel van de jongeren bij het Vijftienvintig-jarig bestaan van de Vereniging voor Calvinistische Wijsbegeerte*. Kok, 310-324.
- Goudzwaard, B. (1970). *Ongeprijsde schaarste: Exprietiale of ongecompenseerde effecten als economisch-theoretisch en economisch-politiek probleem*. Van Stockum.
- Goudzwaard, B. (1972). *Economie en Vooruitgangsidee*. De Erven F. Bohn N.V.
- Goudzwaard, B. (1974). *Schaduw van het groei-geloof*. J.H. Kok.

- Goudzwaard, B. (1975).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Goudzwaard, B. (1976). *Kapitalisme en vooruitgang: Een eigentijdse maatschappijkritiek*. Van Gorcum. Van Nuis Zylstra, J. trans. ed. (1979). *Capitalism & Progress: A Diagnostic of Western Society*. Wedge and Eerdmans. 김병연 역, (1989).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IVP.
- Goudzwaard, B. (1981). *Genoodzaakt goed te wezen: christelijke hoop in een bezeten wereld*. J.H. Kok. Trans. Vander Vennen, M. (1984).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김재영 역 (1987).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IVP.)
- Goudzwaard, B. (1986). *Genoeg van te veel, Genoeg van te weinig: Wissels omzetten in de economie*. Ten Have. 3e ed. 1991. Goudzwaard, B. & de Lange, H. (1995). *Beyond Poverty and Affluence: Toward an economy of care*. Eerdmans/WCC.
- Goudzwaard, B. (1986). Christian Social Thought in the Dutch Neo-Calvinist Tradition. in Block, W. & Hexham, I. (Ed.) (1989). *Religion, Economics and Social Thought: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The Fraser Institute, 253-254.
- Goudzwaard, B. (1992). Samenhang tussen de oorzaken van de sociale problemen. in Mr. Cammaert, P. A. G. & van den Berg, C. A. (Ed.) (1992). *Congresboek van het christelijk social congress: 1991*. J.H. Kok.
- Goudzwaard, B. (1995). Dooyeweerd's maatschappelijke opvattingen. in De Bruijn, J. (Ed.) (1995). *Dooyeweerd herdacht. Referaten gehouden op het Dooyeweerd-symposium aan de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VU Uitgeverij, 25-38.
- Goudzwaard, B. Vander Vennen, M. and Van Heemst, D. (2007). *Hope in Troubled Times: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es*. Baker Academic.
- Goudzwaard, B. & Jongeneel, R. (2014). Reformed Christian Economics. in Oslington, P. (Ed.) (2014). *The Oxford Handbook of Christianity and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engstmengel, J. (2026). Normative Economics in the Dooyeweerdian Tradition: An Evaluative Survey. *Philosophia Reformata* 91 (1):99-121.
- Jongeneel, R. (2019). Economic Normativity: The Case of the Budget Constraint. *Philosophia Reformata* 84, no. 2: 220-244.
- Northcott, M. S. (2004). The Market, the Multitude and Metaphysics: Ronald Preston's Middle Way and the Theological Critique of Economic Reason.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2), 104-117. DOI: 10.1177/095394680401700215.
- Woldring, H. E. S. & Kuiper, D. T. (1980). *Reformatrice Maatschappijkritiek. Ontwikkelingen op het gebied van sociale filosofie en sociologie de kring van het nederlandse protestantisme van de 19e eeuw tot heden*. Kok.

OECD Society at a Glance 2022 보고서.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ociety-at-a-glance-asia-pacific-2022_7ef894e5-en.html)

통계청의 2025년 고용동향 자료. (<https://www.kostat.go.kr/>) <https://allofliferedeemed.co.uk/bob-goudzwaard/>

봄 하우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기독교 경제철학: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Bob Goudzwaard's Critique of the Faith in Progress and Christian Economic Philosoph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경제 사상가 봄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의 기독교 경제철학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경제학이 전제해 온 가치중립성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본 연구는 하우즈바르트의 주요 저작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그의 '진보 신화' 비판과 경제주의(economism)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철학의 핵심 내용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 하우즈바르트는 경제 체제를 단순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궁극적 종교적 헌신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표현으로 이해하였으며, 경제 성장이 그 자체로 목적화되는 경제주의가 발전과 생산성, 시장 자율성을 절대화함으로써 인간과 공동체, 창조 세계에 대한 규범적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통찰을 한국 사회의 압축적 산업화와 고도성장 경험에 적용하여, 경제 성장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왔음에도 인간의 삶을 경쟁과 확장의 논리로 환원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을 강화하였음을 논의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하우즈바르트의 '돌봄의 경제'는 세속 경제 담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신앙과 실천의 도덕적·영적 기초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비록 그의 구상이 구체적 정책 설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지만, 그의 사상은 한국 사회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청지기적 책임과 공공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주제어: 봄 하우즈바르트, 경제주의, 진보 신앙, 돌봄의 경제, 개혁주의 철학